

"이민 110주년 맞은 미국 한국학교, 변해야 산다"

NAKS 젊은 교사들 "차세대 교사 양성에 힘써 달라" 한목소리

(호놀룰루=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왜 한국어를 그것밖에 못 하느냐'고 말하기보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마음을 격려하고 소속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민 110주년을 맞아 18~20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3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에 모인 한국학교 교사 400여 명 대부분은 이민 1세대다.

이민 2, 3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1.5세, 2세인 '차세대' 교사들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재미한국학교 최연소 교장인 송아리(31) 산호세 새하늘한국학교 교장은 "차세대들에 무작정 한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학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жат대를 낮추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차세대 교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속한 새하늘한국학교는 젊은 층이 많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젊은 교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회에도 20~30대의 교사 5명이 참가했다.

송 교장은 "유학생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한국학교에서 많이 봉사해주지만 짧으면 2년, 길어야 3년 정도 머물기 때문에 교사로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1.5세나 2세 등 차세대를 보조교사로 뽑아 한국어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세대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해 한국학교 교사의 '세대교체'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미국 동포 중에도 외국인과의 결혼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계 혼혈 등 다양한 학생을 품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NAKS 등 한국학교 모임이나 연수프로그램에서 다양성과 관련해 한국학교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캘리포니아 다송한국학교의 박은경(40·여) 교사도 "봉사자로 활동하는 1.5세나 2세는 종종 있지만 교사가 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30~40년씩 된 한국학교가 많지만 아직 세대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은 1.5세나 2세가 한국학교 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NAKS 학술대회

등 한국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국어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국학교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주일 내내 아프다가도 한국학교에 가는 토요일이면 나를 정도로 학교에 애정을 가진 박 교사는 최미영 다송한국학교 교장 등과 함께 한국의 문화역사 교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하되 일반 한국사와 함께 미국 이민사를 포함했고, 역사문화 수업 때는 영어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만 써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면 권위적이 되고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한인 2, 3세와의 소통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chomj@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07-20 13:3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